

성명	도윤정	직급	서기관
훈련국	미국	훈련 기간	2023. 7. 26 ~ 2024. 7. 25
훈련 기관	Florida State University Askew School	보고서 매수	105
훈련 과제	미래의 탄소 흡수원, 블루카본 확대 방안		
보고서 제목	미래의 탄소 흡수원, 블루카본 확대 방안		
내용 요약	<p>1. 서론</p> <p>급격한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생물의 서식처가 변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후재해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넘어 이제는 지구상의 생명체의 60%가 멸종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p> <p>이런 위기의식 속에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국제 사회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가 생겼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하였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보다 1.5도 상승하는 시점이 더 앞당겨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2023년 개최된 기후 관련 국제회의에서는 국가들의 보다 더 적극적이고 시급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p> <p>이제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탄소 네거티브를 실현</p>		

해야 한다. 대표적인 탄소 흡수원인 산림은 노화로 인해 그 흡수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대체할 새로운 흡수원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바다'이다. 이는 해초 및 해조류, 갯벌 등 바다의 흡수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산림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 보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바다가 흡수하는 탄소인 블루카본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몇몇 선도국가에서는 블루카본이 NDC에 포함되어 관리될 수 있을 정도로 과학적 연구가 진행되었고, 실질적 복원, 보호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역시 바다 숲 조성, 갯벌 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블루카본 흡수량을 정량화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 실현의 지속가능한 대책으로 주목 받는 블루카본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먼저 국제사회와 국내에서의 탄소중립과 블루카본 정책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간 추진된 연구에 대한 문헌 조사도 실시하였다. 이후, 블루카본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블루카본 정책과 비교하여 개선점을 도출해 보았다.

## 2. 블루카본의 정의 및 문헌 조사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정부간해양조사위원회(IOC) 등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자연계에서 흡수·격리되는 모든 탄소 중 약 55% 정도가 해양 생태계에 저장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었다(Nellemann et al., 2009). 특히 맹그로브, 염습지, 해초 목초지와 같은 연안습지는 전체 블루카본의 50% 이상을 저장하고 있으며, 육지의 산림에 비해 3~5배나 높은 탄소 저장 능력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저장능력이 주목받았다. (Mcleod et al., 2011; Bertolini and da Mosto, 2021).

블루카본에 대해서는 학자,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와 같은 정부 기관에서도 정의를 하고 있다. 먼저 블루카본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UNEP는 블루카본을 “포집 후 해양 퇴적물에 매장되어 있는 탄소”로 정의하였다. (Nellemann et al., 2009) 이후, 블루카본은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공간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에 따라 정의되어 왔다. 블루카본의 공간적 범위는 맹그로브(mangrove), 염습지(salt marsh), 해초지(seagrass bed) 내 퇴적물에 저장된 탄소를 한정하거나, 식물의 뿌리와 줄기뿐만 아니라 낙엽(litter)과 고목(deadwood) 등에 저장된 탄소도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소수의 연구자들은 대기와 연안습지 사이의 이산화탄소 플럭스(flux)도 블루카본의 정의에 포함하였다. 블루카본의 시간적 범위는 대부분 정성적으로 제시되었는데, 장기간 저장의 의미로서 “long-term”, “long timescales” 등의 표현으로 설명되어 진다. 한편, IPCC는 블루카본을 “관리 가능한 해양계 내의 저장되는 모든 생물학적 탄소 흐름 (all biologically-driven carbon fluxes and storage in marine systems that are amenable to management)”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 환경단체인 the Blue Carbon Initiative는 블루카본을 “Blue carbon is the carbon stored in coastal and marine ecosystems”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해양수산부는 2023년 5월 발표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에서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통해 해양 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자, 정부, 국제기구 등 주체별로 블루카본의 정의가 다소 차이가 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IPCC가 인정하고 있는 세 가지 블루카본 흡수원(맹그로브, 해초대, 염생식물 서식지)으로 한정하기 보다는 연안 또는 해양 생태계 전체로 확대하여 예컨대 비식생 갯벌 등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에서 탄소 순환은 100년에 가까운 오래된 연구 주제이지만 블루카본을 전 세계적으로 인식시키는 데는 2009년에 발간된 두 보고서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Nellemant et al. (2009)이 발표한 ‘Blue Carbon: The Role of Healthy Oceans in Binding

Carbon. A rapid response assessment'에서 블루카본은 해양생물에 의해 저장되는 탄소로 정의하면서 블루카본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급했다. Laffoley, D.d'A. & Grimsditch, G. (2009)는 해양생태계가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들이 나온지 4년이 지나 2013년 개정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블루카본을 탄소흡수원으로 추가하여 탄소 배출 감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Lovelock & Duarte, Claes J. et al (2022) 등의 학자의 연구가 있으며,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먼저, Park et al. (2024)와 Kim et al. (2022)은 블루카본에 대한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Park et al. (2019)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블루카본 저장과 관련된 연구 444편을 연도별, 국가별(교신저자 기준), 키워드별, 분야별로 분석한바 있다. Kim et al. (2022)은 그동안 육상 생태계의 그린카본인 수목이나 바이오차 등을 이용한 탄소 저감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었다면, 2018년 이후부터 블루카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윤소라 (2022)는 블루카본을 탄소 흡수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후 적응력·회복력을 높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자연기반해법'으로 주목하였다. 그리고 동해안, 인천, 충청남도 등 특정 지역에서 블루카본 확산 가능성을 검토하는 연구도 최근 진행되고 있다.

### 3. 국내 정책 동향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논의에 따라 2023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으로 수립하였고, ①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② 민간이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③ 모든 사회 구성원의 공감과 협력을 통해 함께 하는 탄소중립, ④ 기후위기 적용과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능동

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5년간 총 89.9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며, 연 평균 약 11.5%씩 예산을 증가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흡수원을 통해 '30년 6.7백만톤을 흡수할 계획이나,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감소하고 있어 산림 대체 공간인 바다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23년 「블루카본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블루카본 흡수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양의 탄소흡수력과 기후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블루카본 흡수원으로 인정받고 있는 염생식물의 면적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32km<sup>2</sup>인 염생식물의 면적을 2050년 660km<sup>2</sup>로 확대하여 23만톤의 탄소를 흡수하고자 한다. 또한, 해초, 해조류를 수중에 복원하는 바다숲 조성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540km<sup>2</sup>의 바다숲을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 등이 IPCC 인증을 위해 연구중인 갯벌을 복원하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선제적으로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고자 한다. 연안 재해 취약지역, 해안침식 지역에 친환경 해안을 조성하는 '숨 쉬는 해안 뉴딜' 사업을 추진해 블루카본 확보뿐만 아니라 기후 재해도 대응하고자 한다.

#### 4. 국제 사회 정책 사례

##### 4.1 국제사회 논의 동향

연구배경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제적인 협력과 실천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최우선적인 실천방안이 탄소중립, 탄소순배출 제로라고 보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 개최된 2023년 UN 총회 및 SDG Summit, 기후목표 정상회의('23.9.18~20), 같은 기간 기후대응 주간에 뉴욕에서 이루어진 시민단체의 세미나('23.9.17~24) 등을 살펴본 결과, 각국의 대표는 기후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고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블루카본 이니셔티브 역시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단순히 지지·옹호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광범위한 사회적 확

대, 정책 입안 및 추진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와 미국은 블루카본을 국가 온실가스 저장 수치에 포함하기 시작하였다.

#### 4.2 미국의 정책사례

글로벌 난제(wicked issues)와 복잡한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어떤 하나의 행위자(팀, 부서, 부처, 기관, 정부 등)도 단독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각국의 정부 운영 패러다임 역시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행정 전 분야에 걸쳐 민간과의 다양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의 역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5년 텍사스주의 'Adopt-a-Highway Project'와 1982년 테네시주 Knoxville에서 시작한 'Local Food Policy Council'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블루카본 사업 역시 민간 및 지역사회가 협업하는 거버넌스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해양에 대한 기후변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육상에서 탄소 흡수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나면서, 미국 정부 역시 해양과 기후 변화의 연계성에 점점 더 관심을 돌리고 있다. 미국은 연안 서식지 보호 및 복원을 블루카본 정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연안 서식지가 훼손되면 상당한 양의 탄소가 대기중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연안 서식지 보전을 통한 블루카본 사업 및 관련 연구는 주로 NOAA Fishery에서 추진하는데, 각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지역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에 제공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혜택도 포함되도록 추진한다.

Oregon 주에서 추진된 'Southern Flow Corridor 프로젝트'는 연어 서식지를 보전하는 동시에 지역의 홍수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를 통해 서식지 복원과 홍수 예방 효과를 달성하였다. 동시에 주변 거부지역의 가치 상승, 퇴적물 감소로 인한 수질 개선, 항로 유지를 위한 준설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였다.

미국은 블루카본의 확대를 위해 탄소 저장 및 흡수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실시함과 동시에 보호와 복원이 사회·경제적으

로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주요한 전제가 될 수 있다.

NOAA Fisheries는 블루카본 복원 프로젝트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블루카본 서식지 복원이 홍수 예방과 수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 개발 활동이 블루카본 서식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NOAA, EPA, 어류 및 야생동물보호국, 미 육군공병대 등은 연안습지 워킹그룹을 통해 연안 서식지의 훼손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기관 간, 민간과의 광범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있다.

NOAA는 5년간 약 8억 3,200만 달러를 집행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국가 통합적 연안 관리 프로그램, 국가 하구 조사 보호구 시스템, 국가 연안 회복력 기금, 지역 해양 파트너십 하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이러한 프로젝트는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행되고, 파트너십 및 역량 강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블루카본 정책을 살펴본 결과, 블루카본 흡수원의 보전과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공동체를 참여 시키고, 사회적·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연구개발 역시 보전과 복원, 탄소량 측정 등의 기술적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연구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인해 보다 많은 주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관련 법령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의 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 4.3 일본, 프랑스 및 호주의 정책사례

일본 역시 국제적 추세에 따라 일본 내 지역사회는 블루카본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사회적 이행을 향한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민간기업, 지방정부, 개별 관리자 및 기술자들은

새로운 사업 기회로서 블루카본 생태계의 보존 및 회복이라는 미래 사회경제개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은 2019년 내각에 의해 승인된 “Long-Term Strategy as a Growth Strategy Based on the Paris Agreement”에서 블루카본의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잠재력 확대를 추구할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배출권 거래 시스템 (emissions trading systems ETSs)의 실현이다. 하지만 일본 역시 해양성 블루카본의 과학적 지식과 정책 경험은 부족한 상태이며, 블루카본 크레딧 생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요코하마시의 블루카본 프로젝트, 후쿠오카시의 Offset Credit System, 일본 정부의 Offset Crediting 시범사업 등 해초 군락지, 대형해초 양식과 관련된 블루카본 크레딧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생태계 시스템의 하나인 블루카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책적으로 도입하는 단계에 있으며, 시장에 기반한 블루카본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2018년 프랑스 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탄소 프로젝트를 인증하기 위해 ‘Label Bas-Carbone(LBC - low carbon label)’이라는 자체 표준을 마련하였다. 프랑스 생태전환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도입 이후 13개의 방법을 승인하였고, 628개의 프로젝트를 인증하였다. 이로 인해, 약 220만 개의 잠재적인 tCO<sub>2</sub>e를 감축한다. 현재 LBS를 통한 승인과 인증은 농경지와 숲에 집중되어 있으나, 최근 LBS는 블루카본 생태계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3년 4월에 프랑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Posidonia 해양 목초지 보호에 관해 공식 승인하였고, 맹그로브 숲과 열대우림의 복원에 관한 방법도 개발하였다. 승인된 방식의 특징은 자연에 기반한 탄소중립 솔루션을 찾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는 세계적인 ‘블루 카본 핫스팟’으로 여겨지고 있다. 호주는 세계 블루 카본 생태계의 약 12 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생태계는 전 세계 블루 카본 스톡의 약 5-11 퍼센트를 저장하고 있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 있는 산호초를 둘러싸고 있는 해초 초원에만 전 세계 해초 블루 카본의 약 11 퍼센

트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블루카본 정책의 발달을 가져왔다. 호주 정부는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생물 다양성 및 위협받는 종의 보호, 재해 위험 감소 및 해안 지역 사회의 생계를 위해 블루 카본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블루카본 생태계를 보존하고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Department of Climate Change, Energy, the Environment and Water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연구, 현장 복원 프로젝트, 역량 강화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있다.

## 5. 정책 제언

국제 사회 논의 동향 및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의 해외 정책 사례를 검토한 결과, 각 국가의 정책 추진 환경, 그간 추진한 블루카본 정책들의 경과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몇 가지 공통점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블루카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넘어 정책적 실행의 단계로 이행되었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복원·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제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한다. 블루카본 사업의 지속적 실행을 위해 사업 접근 방식, 연구 범위, 재정 확보, 근거법령, 제도,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검토하고 있다.

둘째, 블루카본 확대 사업을 다양한 가치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연안 생태계 조성, 지역 주민과 공동체의 삶의 질 개선 등의 가치와 연결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이상의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블루카본 연구 역시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가 블루카본을 정의하고, 국제 논의동향과 연구 동향을 검토하는 정도인 것에 비하면 사업 전 과정에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고민들이 모두 연구의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셋째,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고 있고,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모든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지역주민, 전문가들

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기관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민간이 사업을 계획, 시행하고 성과 평가도 하는 형태를 보인다.

넷째, 블루카본 크레딧 개발 및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블루카본 흡수량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NDC에 포함하기 위해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금은 그 목적과 더불어 블루카본 크레딧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미국의 Verra, 일본의 블루카본 크레딧 시범사업이 대표적이다. 블루카본 사업이 이미 실행을 넘어 사업의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가가 기술력 부족으로 블루카본을 NDC에 포함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된 복원 사업도 추진 못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블루카본 사업은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에 맞추어 잘 추진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미국, 일본, 호주 등에 비하면 초기 단계의 단편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블루카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블루카본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먼저, 블루카본 추진전략과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고, 사업 간의 유기적 연계성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블루카본 확대 사업이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경제적·사회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 수준의 종합 정책 수립과 동시에 지역 현실을 잘 반영한 개별 지자체의 정책 수립도 함께 이루어져야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블루카본 정책이 다양한 가치가 어우러진 종합적인 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규범으로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개별 사업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침이라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거버넌스로 거듭나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내용과 범위의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블루카본 조성 방법, 탄소 흡수량 측정 등의 과학적 연구뿐만 아니라

사업간 연계 방안, 법적 문제점 검토, 사업의 사회·경제적 편익 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개별 지역에 적합한 블루카본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 거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재정 확보를 위해 민간의 참여도 필요하다. 초기 사업의 설계, 연구,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블루카본 조성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나라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블루카본 크레딧을 만들어 탄소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이미 상당 부분 진전을 보인 분야로 우리도 신속한 검토와 도입이 필요하다.

탄소중립과 블루카본 확대는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정책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전제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신규 블루카본 인증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기구, 타 국가와의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개선사항이 반영된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의 확보도 중요하다.

## 6. 결론

블루카본 확대는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제사회에서의 도덕적 책임과도 연관이 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처 방법이고, 우리의 미래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이다. 더불어 블루카본 크레딧이라는 새로운 재원이 될 수도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당장의 조성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는 단기적 정책에서 벗어나 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블루카본 정책을 재점검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